

# 교육복지서비스 이용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최 유 경(명지대 박사과정) · 최 인 화(명지대 조교수)

본 연구는 사회 심리적 문제에 많이 노출되는 중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교육복지서비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과 이용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와 교육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강서구 및 양천구에서 교육복지서비스의 모든 영역(학습, 정서, 문화, 복지)을 이용하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중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11년 10월 24일부터 2011년 11월 2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2011년 11월 7일부터 2011년 11월 16일까지 설문을 통한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Data Editor 19 통계 도구를 사용하여, 빈도분석,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 사후검증,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교육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과 가족형태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학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에서는 3학년이 1학년과 2학년보다 통계상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복지서비스 이용개수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본 결과 하위영역 중 수업적응과 친구적응, 생활적응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환경적응과 교사적응에서 이용개수 ‘상’집단과 ‘중’집단이 ‘하’집단보다 통계상 유의하게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체 교육복지서비스의 만족도는 전체 학교생활적응은 물론 하위영역인 수업적응, 생활적응, 환경적응, 교사적응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복지서비스의 네 영역(학습, 정서, 문화, 복지)별 만족도도 전체 학교생활적응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교육복지서비스의 각 영역이 표준화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교육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영역별로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에 소재하는 중학교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모든 지역의 청소년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동안의 연구와 달리 교육복지서비스의 모든 영역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일반적 및 이용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을 살펴보고 교육복지서비스의 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추후 중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복지서비스의 영역별 기여도에 대한 논의점과 교육복지서비스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